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 後殖民食物與愛情》, 예스 也斯 지음, 김혜준/송주란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9)

옮긴이에 대해

김혜준/송주란



김혜준은 고려대학교 중문과에서 중국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중국 현대문학의 '민족 형식 논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동안 홍콩 중문대학, 중국 사회과학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등에서 연구생 또는 방문 학자 신분으로 연구를 했다.

구체적 학문 분야로는 중국 현대문학사, 중국 신시기 산문, 중국 현대 페미니즘 문학, 홍콩 문학, 화인 화문 문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국 현대문학 발전사》(1991), 《중국 당대문학사》(1994), 《중국 현대산문사》(1993), 《중국 현대산문론 1949~1996》(2000), 《중국의 여성주의 문학비평》(2005) 등 관련 이론서를 번역하기도 하고, 《하늘가 바다끝》(2002), 《쿤룬산에 달이 높거든》(2002), 《사람을 찾습니다》(2006), 《나의 도시》(2011) 등 수필 작품과 소설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저서로 《중국 현대문학의 '민족 형식 논쟁'》(2000)이 있고, 논문으로 <화인 화문 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2011) 외 수십 편이 있다.

개인 홈페이지 '김혜준의 중국 현대문학(<http://home.pusan.ac.kr/~dodami/>)'을 운영하면서, <한글판 중국 현대문학 작품 목록>(2010), <한국의 중국 현대문학 학위 논문 및 이론편 목록>(2010) 등 중국 현대문학 관련 자료 발굴과 소개에도 힘을 쏟아 왔다. 근래에는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http://cccs.pusan.ac.kr/>)을 중심으로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번역 역시 그 결과물 중의 하나다.

송주란은 경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也斯 산문의 홍콩성 연구—1970~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학 중이며, 논문으로는 <通過 “後殖民食物與愛情” 看對香港的想象和現在的香港>(2011)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홍콩 문학과 홍콩 문화로, 특히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변화된 홍콩 사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홍콩 사회 및 그 문학과 문화가 전지구화와 지역화, 포스트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및 재민족주의, 후기자본주의와 디아스포라 등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동료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소에서 홍콩 문학, 타이완 문학, 화인 화문 문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